여러분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근본부터 아셔야 됩니다

☞ 19면에서 계속

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보이는 공부죠. 그러나 빛보다 더 빠른 한 찰나라는 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로 재고 있겠소? 응? 빛보다 더 빠른데! 미국을 가는 데도 요기서 요 한 발짝 쳐다보는 거나 미국에 가는 거나 저 달에 가는 거나, 은하계에 가는 거나 똑같애. 그런데 어떻게 자로 재겠느냐 이거야. 잴 수가 없죠. 그래서 구지 스님은 손가락 하나 가지고 일생을 가르쳤어, 손가락 하나 가지고. 그 손가락이 보통 손가락이 아니거든, 뜻으로 본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도리를 공부하면서 주장자가 없다면 빈집이 돼서 그 빈집 속에서 업식으로 만난 인연들이 나고 들면서 세균도 끌어들이고, 병들도 끌어들이고, 영계들도 끌어들이고, 인연 닿는 대로 그저 그냥 왔다 갔다 하며 장구 치고 북 치고 하면은 여러분이 살겠어요? 바깥으로 나오는 집안일들이나, 병이 드는 일들이나, 식구들에게 모두 참 굉장치도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 여러분은 그 고를 어떻게 밀고 나가겠느냐 이거야.

그뿐이 아니에요. 임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네게 주장자가 있다면 내가 주장자를 줄 것이로되, 네게 주장자가 없다면 주장자를 내가 뺏을 것이니라." 그게 무슨 소리냐? 집이 비었다면은 주장자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냥 온통 야단을 쳐도 모르고, 코를 통하고 눈을 통하고 털구멍을 통해서 들락날락 들락날락 해도 본인은 모르는 거야. 자기 집을 그렇게 드나드는지도 모르면서 단전을 해 가지고 머리가 이상해지고 하는 것들, 그런 건 몸에 관한 건이지, 피를 통하게 하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일이지 내 마음공부가 아니야.

왜 아니냐. 그것도 마음공부 아닌 게 없지마는 내가 이 안에서 발견하지 않고는 그거는 그냥 몸을 튼튼하게 한다는 생각뿐일 거야. 몸이 튼튼해야 공부한다는 것만 알았지, 내가 모든 걸 귀결해서 놓으면은 몸 튼튼해지는 건 물론 모든 부분이 좋아져서 공부를 잘한다는 건 몰라. 하나만 알지 둘도 몰라.

그래서 바깥에서 타력 신앙으로 믿는 사람들은 병자가 많아. 한철 가서 참선방에 가서 있다 오면 병 집이 돼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 한철 나고 해제를 하면은 약탕관 떠날 사이가 없다가 또 결제가 되면 약탕관을 놓고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것은 참선방에 다녀도 혼란이야, 혼란.

이 전체 삼라만상 도량이 그냥 참선방이야. 변소에 가도 참선이요, 드러누워도 참선이요. 그러니까 앉아도 참선이요, 마음이 편안하게 가라앉고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살면 모든 게 스스로서 따뜻하게 내 집안이 아늑해져.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 화목해지고, 우환이 없어지고 어떤 급한 일이 생겨도 주인공에 맡기고 스위치만 누르면 그게 돌아가서 어떡하든지 와서 닿아. 그것이 바로 끊어짐이 없는 참선인 것이죠.

아마 체험을 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그렇게 체험함으로써 내가 나의 주인공을 신임을 하게 돼. 신임을 하게 되면 그때서는 '아, 주인공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는구나.' 하는 게 믿어지니까 그때서부터는 딱 쥐고 가는 거야. 그건 뭐, 24시간 생각을 안 하고 있어도 그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다니는 것조차도 '주인공이 다 내 모든 것을 끌고 다니는구나. 그 언덕이 없었더라면 소가 와서 비빌 수가 있겠나.' 아, 모든 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니까 진짜 공부가 되는 거야. 타력 신앙은 이익이 하나도 없고 공덕이 하나도 없어. 수천억만 원을 갖다가 준대도 그것은 공덕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난해서 돈이 없어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같이해.

그리고 이 세상의 사생 전체가 다 둘이 아닌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비구 비구니를 따진단 말이야. 이거는 벌레도 둘이 아닌 까닭인데 아니, 여자 남자 따진다면 그건 공부 다했지. 호랑일 잡으려면 호랑이 소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지. 또 그 하치 못한 개구리를 알려 해도 개구리 속에 들어가 봐야 알어.

옛날에 원주에서 어떤 사람이 소를 기르는데 소가 병이 나니깐 그 집은 다 망하게 생겼단 말이야. 젖소를 열다섯 마리 기르는데 열다섯 마리 중에 하나 남곤 다 병이 났다는 거야. 그러면 그 집 망하는 거지, 아주. 세상에 광주리에다가 쌀하고 돈하고 초하고 사 들고는 그 산중에를 왔어.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직접 만나도 그 사람은 난 줄을 몰라. "내가 그럼 그렇게 여쭤 드리지요." 이렇게 했지. 내 얼굴을 모르니까. 허허. 나는 바깥에 버섯을 따러 나갔었는데 아, 그걸 광주리에다 이고 그냥 쩔쩔매고 오더라고. 그래도 그거 받지 않았어. 그거 받으면 못써. 아무개 스님을 찾으러 간다고 그래서 "그 스님 지금 안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러고저러고 해서 지금 소가 전부 병이 들어서 집안이 다 망하게 됐고 벌써 한 마린 쓰러졌고 죽게 됐습니다. 이거를 살려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린 다 죽습니다." 하고 엉엉 우는 거라.

그래서 그랬지. "그분은 지금 출타하시고 안 계시지만 내가 꼭 얘기를 해 드릴 테니까 내려가 보세요. 아마 그분은 벌써 아실 거예요. 그분은 천 리 가 있어도 아시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만 해도 아실 거예요. 지금 보살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분은 알아듣고 벌써 그것을 다 죽지 않게, 망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 놓고는 내려보냈겠다. 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회장도 그렇게 내가 없어도 "안 계시지만 그분은 벌써 알고 계실 테니 내가 말씀은 해 드리죠." 이렇게만 해도 그게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알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모두가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통신도 되고 전력, 광력, 자력이 충분히 거기에서 나오고 천체 통신, 타심, 숙명, 천이, 천안, 누진이 다 풍부하게 동시에 돌아간다고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휴, 우리 소가 다 나아서 이제는 살았습니다." 하고 왔을 때에 그렇게 기쁜 것은 없어.

또 누가 아무리 나를 속이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건 속인 게 아니야. 이익하게 속이는 거는 속인 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 만약에 내 식구가 먹질 못해서 부황이 나 가지고 먹을 거를 도둑질했다 합시다. 그럼 그건 도둑질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물질세계에서는 몸을 붙들어 가지만 이 마음세계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그거는 착한 효자라고 보고, 바로 부모니깐 자식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눈물이 날 지경이죠, 죄로 몰기 이전에.

전에도 이런 말을 종종 했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소금을 요만큼 싸 가지고 다녔죠. 그렇게 남한테 뭣을 달라기가 싫었습니다, 저는. 소금만 싸 가지고 다니고 야채를 먹으면 날콩만 한 움큼 가지면 됐고, 구태여 먹을 거를 싸 들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설법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도 공부하면서 알 양으로, 미리 좀 다 알았으면 하는 욕심이 있으시겠죠. 세상이 찰나찰나 돌아가는데 지금 이렇게 화해서 돌아가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따라 나한테 닥치는 대로 자꾸 돌아가는데 무슨 욕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거를 체험을 하면 되지, 체험을 하고 자꾸자꾸 돌아가면 되지 그건 미리 할 수가 없어요.

미리 알고 있으면 벌써 그거는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에 알려고 애를 쓰지도 말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대기설법으로서 그냥 책을 놓고 내용을 뽑아 가지고 하려면 그게, 여러분 앞에 가고 옴이 없이 그것이 갑니까? 불이 켜집니까? 여러분과 나와 마음이 있고 역대 제불의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한자리요, 한 통 속이다 이거야. 그러니 그 한 통 속에서도 벗어나야 된다 이거야, 한 통 속에서도. 그래야 통을 굴리지. 원심력이 있다면 원통력을 발휘해서 통을 빠져나와서 그 통을 굴려라 이거야. 이것이 바로 오신통을 굴리는 방법이죠. 여러분이 어느 거든지 다 갖추어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탄허 스님이 '없고 없고 또 없다'는 뜻으로 '무무역무(無無亦無)'라고 썼듯이…. 없고 없고 또 없구나! 나는 이 말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뒷발자국도 없고, 앞의 발자국도 없고, 현재 떼어 놓는 발자국조차도 없다라고 했죠. 그게 그 소리야. 찰나찰나 고정관념도 없고 고정 행도 없으니까. 이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저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찰나찰나 바뀌어 가는 거를 어떻게 내가 미리 좀 많이 알았으면 하고 그렇게 욕심을 두느냐 이거야. 하나하나 닥치는 대로, 내가 24시간 살아나가는 대로 24시간조차도 없는 거라. 밤낮도 없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동쪽이 서쪽이 되고, 서쪽이 동쪽이 되고 이렇게 뒤집혀서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동쪽이다 서쪽이다 하겠어.

그러니 유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이 도리를 공부해 가지고 유식한 거를 거기에 포함해서 쓰세요. 그러면 좋지만, 우리 이 마음의 공부라는 거는 유식하고 학식이 높고 이름이 높고 그렇다고 해도 이 공부하는 데는 그게 아무 이익한 게 없어요. 모든 거 아는 것도 다 거기다가, 아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 모르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 잘되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 또 안되는 것도 그놈이 안되는 것. 그러니 안되는 것도 그놈이 해결할 거, 잘되는 거는 그놈에 감사하고, 그놈 그놈, 그놈 아니면 안 되죠.

여러분이 다른 걸 믿는다고 하나 허공을 믿겠습니까, 내 이름을 믿겠습니까, 역대 보살들의 이름을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근본부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부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운전수이니까 잘 끌고 다녀야 합니다.

그저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나는 체계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보는 대로 여러분이 알면 나도 알게 되고, 여러분이 모르면 나도 모르게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찰나 생활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러니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잘, 조절해서 체계 있게 잘 생각을 하세요. (음성 공양이 끝난 후) 모두 한 부처이며 각각 자기 부처님 설법을 자기가 듣고 감사히 생각하면서 잊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찰나찰나 지금 이렇게 화해서 돌아가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따라 나한테 닥치는 대로
자꾸 돌아가는데 무슨 욕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거를 체험을 하면 되지.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9년 3월 19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불 향 : 8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